

'ACC 미래상' 수상자 김아영 작가 선정

혁신적 미래가치·창조적 예술가 발굴 격년 운영

첫 수상 김아영 미디어아티스트...8월 30일부터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미래상'을 새롭게 제정한 운영한다.

'ACC 미래상(ACC Future Prize)'은 ACC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창조적 예술 언어의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융·복합 예술 분야 수상제이다.

ACC는 새로운 예술적 사고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가 1인(팀)을 선정해 올해부터 격년제로 수상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ACC 미래상' 수상자에게는 복합전시1관 전시를 위한 작품제작비 3억원과 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해외 전시 추진 등 혜택이 주어진다. ACC는 'ACC 미래상'을 통해 인간-환경-기술을 비롯한 사회 전환기의 예술 환경 변화를 아우르고, 예술 가치와 융·복합 기술을 매개한 예술적 실험이 유추하는 미래 삶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ACC는 지난해 국내외 20여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작가추천을 받아 총 4명의 작가를 1차 선정했으며, 선정된 작가들로부터 작품제안을 받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과정을 거쳤다.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아영 미디어아티스트는 역사·정치·지정학 등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경계와 그 세계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며, 실재와 환영, 미래의 도상들을 담은 영상, 퍼포먼스, 설치작품을 통해 국내외 예술계에서 주목 받아왔다.

'ACC 미래상 2024' 심사위원회는 "김아영 작가사신의 중첩적이고 강력한 서사에 다층적인 시각적 요소를 집적시키는 김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소멸한 역사의 기록, 작가의 미래주의적 세계관이 담긴 가상의 시나리오와 AI가 선사하는 열린 결말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작가의 작품 '기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이조흥 작가의 작품으로, 두 가지의 영상으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이다.

'기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바락과 벽을 '지구'와 '정글'로 치환해 바락면 '지구'에는 삶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벽면 '정글'에는 자연 속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담았다.



/조선주 기자

곡성군 갤러리 107 독방 '5인 5색'展

내일부터 5명의 작가, 총 60여 점의 작품 선봬

곡성군이 운영하는 중앙로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곳에서 '독방 5인 5색'전의 첫 번째 전시가 오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주간 열린다.

'삶을 예술로, 예술을 삶으로'라는 주제로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가치를 겸비해 다양한 감성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독방마켓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예술적 능력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기획전이다.

천연염색가 김말레, 금속공예가 민대식, 화가 임원자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6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민대식 작가는 "사라져 가는 수공예가 가진 '손(手)'의 가치를 홍보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갤러리 107은 전시 기간 중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곡성=홍경백 기자

ACC, 이주작가 이색 도자기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에서 현대 도예 전시 '길 위에 도자'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길 위에 도자'는 ACC에서 진행하는 첫 도예 전시로, 아시아에서 이주한 도예 작가 양상을 현대 미술로 새롭게 해석해 소개한다.

전시는 한국계 미국인 세 오와 스티븐 영 리, 베트남 멕시코계 미국인

린다 응우옌 로페즈, 캄보디아계 미국인 에이미 리 샌포드 4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민 2세대 등에서 비롯된 문화 충돌과 정체성을 탐구, 자신의 서사를 도자에 담아낸다.

오는 18일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작품 제작을 지원·협력한 조선대학교 김준성 총장을 포함해 스티븐 영 리, 세 오 작가가 참석한다.

/조선주 기자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미디어아트 보러 오세요"

효문화전당 공동 협력 전시 '공간, 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展

해남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공동으로 '공간, 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 전시회를 해남읍 연동리에 위치한 땅끝순례문학관 2층 기획전실에서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미디어아트 공동 협력 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 너머 공간으로의 초대'와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2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상영한다.

'기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이조흥 작가의 작품으로, 두 가지의 영상으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이다.

'기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바락과 벽을 '지구'와 '정글'로 치환해 바락면 '지구'에는 삶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벽면 '정글'에는 자연 속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담았다.

/해남=김동주 기자

독자투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노력 필요



김창희 /순천경찰서 별랑파출소

마약은 사람의 신체는 물론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곧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1만7817

명으로 2022년 1만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최대 인원으로 기록됐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3년 2178명이 적발됐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통계가 나와 있는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 무인 배송을 통해 마약류를 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단속과 국제공조 등 수사 강화로 외국인 마약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국가에서는 마약 등 불법 약물을

강하게 규제하고 법에 위배되며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되는 등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절대 벗

어날 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중독재활치료 등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 관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강화돼야겠다.

4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 주의



박진형 /담양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우리나라는 완연히 봄이 시작되는 3-4월을 전후로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비 오는 날의 햇수가 적어 작은 불티만으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한다.

하루 중 산불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시간은 습도가 낮은 낮 12시에서 18시 사이며,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한다.

사계절 중 산불에 가장 주의해야 할 계절은 바로 봄이다.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봄철에 일어나는 산불의 대부분 원인은 입산자들의 부주의에 인한 실화, 한식날을 전후한 성묘객들의 담뱃불, 논·밭두렁 또는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실화, 어린이들의 불량난 등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 등산할 경우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물질을 휴대를 일절 금하고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행위나 불 피우는 것도 일절 금해야 한다.

△ 밭두렁·논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시에는 소방서 등에 사전 신고를 하고 불길에 산림에 옮겨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30년이 걸리며, 자연적인 생태계 회복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봄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채널도르테크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지사안내
상무...381-5310	목포...010-8718-1234
서부...651-0004	순천...010-9656-1383
송암...362-4102	광양...010-9656-1383
진성...362-4102	나주...010-5691-1976
농성...671-7276	담양...010-9067-4076
봉선...675-5530	곡성...010-5602-1785
중양...521-5640	구례...010-8997-0053
중흥...433-1503	보성...010-3626-4776
양산...574-3745	
운암...521-4270	
	화순...010-2430-55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3610-9153
	강진...010-3775-2369
	장성...010-3610-7824
	함평...010-3095-5842
	영암...010-4604-3742
	무안...010-2050-0136
	진도...010-8625-4567
	해남...010-3471-6542
	광산...010-7613-4320
	고흥...010-4644-8383